

자라나는 씨앗과 열매(막4:26~29)

(26)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

(27)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

(28)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

(29)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

1. 당신은 어렸을 때와 지금과 무엇이 달라졌나요? 어떤 점이 그대로이고, 어떤 점이 더 성장했는지 말해보세요.

2.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. 씨를 땅에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?

땅이 스스로 ()를 맺되 처음에는 ()이요 다음에는 ()이요
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()이라(28).

3.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‘자람’이 있습니다.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?

싹에서 이삭으로 곡식으로의 열매가 있나요? 있다면 어떤 열매인지, 없다면 왜 없을지 생각해 봅시다.